

2024 문화예술기관 공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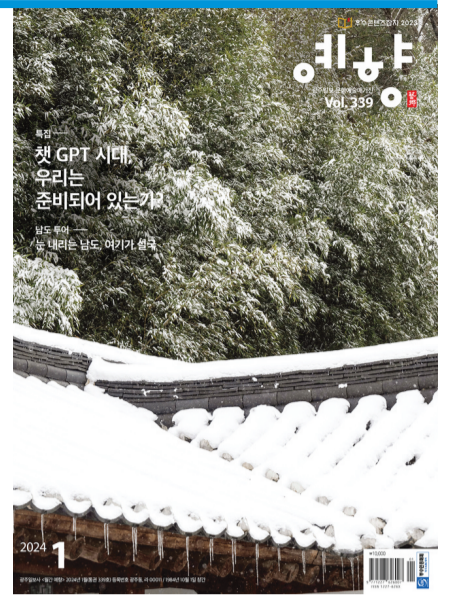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월호



광주시립교향악단은 갑진년을 맞아 오는 16~17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신년음악회 'Festival'을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예향



광주 특색 살린 다양한 기획공연 펼쳐진다

올해는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이다. 비상하는 용처럼 활기있고 작품성 있는 공연들이 관객들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갑진년 탄생 100주년, 국립남도국악원 개원 20주년 등과 맞물려 다양한 기획공연이 마련돼 있다. 토요일 등 광주만의 특색을 가미한 공연들도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지역 문화예술 기관들이 준비한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먼저 광주예술의전당 첫 무대의 막은 오는 3~7일 '2024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 광주'가 연다. 그동안 미술사보다 '일루셔니스트'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소개해 온 이은결의 마술쇼를 볼 수 있다.

이어 뮤지컬 '이상한 엄마'는 같은 달 12~14일, '시스터 액트'는 23~28일 예정돼 있다.

신년음악회도 펼쳐진다. 전남대 민주마루(16~17일)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제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은 바그너 '뉴른베르크의 명가수',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일제강점기와 민족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연도 있다. '3·1절 기념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이 바로 그것. 광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불교시인 이자 민족대표 33인 한용운을 초점화해 선보여 온 무대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4월 30일~5월 5일), '김연자와 함께하는 광주 5월 치유 콘서트'(5월 10~11

'3·1절 한용운이 부르는 님의 침묵' '김연자와 광주 5월 치유 콘서트' 우수 어린이 국악작품 초청공연 '빛고를 기악대제전' '명창 명무전' 등

일)도 그 명성과 맞물려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예술의전당은 상반기 대극장에서 총 21건, 소극장에서 총 15건의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에 따라 국악원은 알차고 품격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3월 2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의 '토벌가'를 무대에 올린다. 이어 가정의 달 5월에는 4~5일 이틀간 '우수 어린이 국악 작품' 초청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7월 5일에는 개원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국악원 대표작 '씻김굿' 공연이 마련된다. 또한 7월 한 달간(6, 7, 20, 27일 오후 7시) '굿 음악축제'를 개최, 우리 국악의 신명의 세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의 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공연'은 7~8월 중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국악원의 대표 사업인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초청연수에 참가했던 단체들을 초청해 무대를 선보인다.

국악원 관계자는 "2024년은 국악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라며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에 찾아와 준비한 작품들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월 26~27일 '김정민 2024 Eternity' 공연을 볼 수 있다. 1992년 '4일간의 사랑' OST로 데뷔한 김정민은 최근 그룹 MSG워너비 등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또 2월 17일에는 광주댄스팀 '빛고을댄서스'의 '2024빛고을댄서스 겨울콘서트 UP TO M'이 진행된다.

오는 3월에는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주관으로 '제38회 광주연극제 및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예선대회'가 열린다. 같은 달 26~31일에는 극단 소년이 연극 '플레이 백'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5월 25~26일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여는 '제23회 대한민국 빛고를 기악대제전'과 5월 말부터 6월 1일 (사)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의 '2023 제2회 빛고를 명창.명무전', 6월 7~9일 뮤지컬단 다리의 '망월:달을 바라다' 등도 볼거리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호랑가시나무창작소 10년...작가와의 관계를 조명하다

15일까지 10주년 기념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수히 많은 동전으로 이루어진 'FAKE'라는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벽면에 부착된 캔버스에 수놓아진 100원짜리 동전은 줄잡아 수백 개에 이른다. 동전을 틈새로 보이는 작품의 제목 'FAKE'는 이편을 향해 어떤 경로의 문구처럼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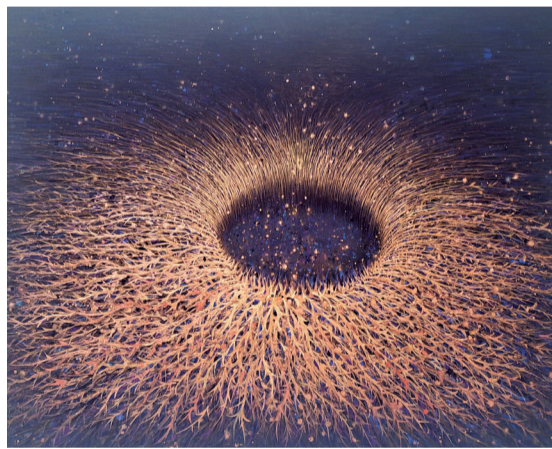
'돈'과 '거짓'.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돈은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unki)가 최근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를 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레지던시에 머물렀던 작가들과 창작소와의 관계, 다시 말해 창작소가 작가들의 작품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전시장에서는 그동안 창작소를 거쳐 간 이이남, 한희원 등 6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정unki 대표는 "양립동이 전국적인 문화예술마을로 발돋움하고 알려지기까지는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가 창작자의 거점 공간으로써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던 데 있다"며 "이번 전시는 창작소의 아트폴리곤, 글라스폴리곤, 베이스폴리곤 등 레지던시 공간을 매개로 다채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FAKE'의 작가 서법현도 이곳 창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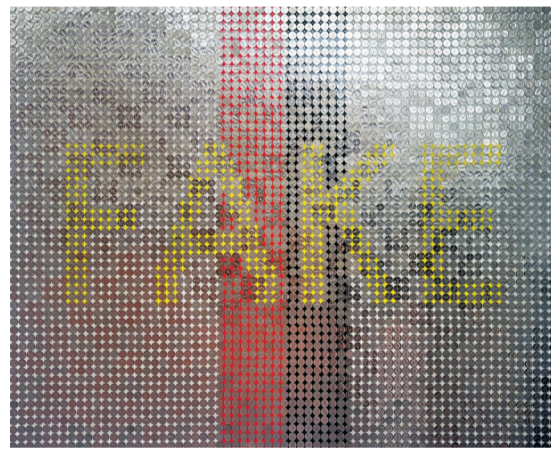


윤세영 작 '생성지점'

에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작품 'FAKE'에 대해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예술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누구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마치 그것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허위에 속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윤세영 작가의 '생성지점'도 오래도록 발길을 붙잡는다. 눈앞에 펼쳐진 작품은 거대한 태풍의 눈 같기도 하고, 은하계에 무한대로 펼쳐진 블랙홀 같기도 한 형상이다. 꿈틀거리는 이미지는 강렬한 에너지로 전이돼 금방이라도 화폭 밖으로 넘쳐날 것 같다. 아니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도 같다.

작가는 모든 것의 생성은 원심력이나 구심력 같은



서법현 작 'FAKE'

강력한 에너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 삶의 양상도 마찬가지일 터. 생성과 변화의 지점에서 발견되는 에너지는 새로운 창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박의 '어떤 풍경'은 신년의 신선한 기운으로 다가온다. 맑으면서도 투명한 그러면서도 영험함이 깃든 풍경은 올 한해 내딛는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또한 창작소에서는 이곳을 거쳐갔던 이이남, 한희원 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창작소는 지난달 10주년을 기념하는 소소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공연과 퍼포먼스 아티스트 구혜영 작가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국립남도국악원, '동계 미래 교원 국악연수' 참가자 모집

장차 국악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미래 교원'을 대상으로 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5일까지 '2024 동계 미래 교원 국악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착순 40명.

국악 연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4박 5일간 국악원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국악실기 집중 과정으로 남도, 경기, 서

도, 동부, 제주 민요들 중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가창법을 배운다.

이외 단소, 사물장구, 장구 반주법 연수 등도 마련된다. 강강술래 이수자와 함께하는 '강강술래 배우기', '판소리 렉처콘서트'를 비롯해 '해설과 함께 나누는 국악공연' 등 미래 국악교육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프로그램들도 있다.

국악원 하나영 주무관은 "미래 교원을 꿈꾸는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와 학습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국악원에서 마련한 주요 사업"이라며 "수강생들이 국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미래 교육 현장에서 배움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음악교육과 대학생, 대학원생 등 접수 가능. 국악원 누리집 교육·체험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챗GPT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전남 설정 '눈 내리는 남도, 여기가 설국'

2024년이 밝았다. 새해의 화두는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인터넷(1994년)과 스마트폰(2007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첫 선을 보인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창작의 세계까지 넘는다.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는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신년호는 특집 '챗GPT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로 2024년을 시작한다.

예향 초대석의 올해 첫 주인공은 '길위에 김대중'을 제작한 이은 명필름 대표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길위에 대통령' (감독 민한기)이 오는 10일 개봉된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잃지 않고 '길' 위에서 국민과 함께 하고자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길위에 김대중'을 공동 제작한 이은 대표를 만나 다큐 제작의 의미와 영화인생 이야기를 듣는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승천하는 푸른 용처럼 다양하고 특별한 콘텐츠로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의 새해 계획을 들어보고 '트렌드 코리아

2024'를 통해 올해 소비 트렌드를 들여다본다.

호남을 대표하는 문화매거진 '예향' 창간 40주년을 맞아 기획시리즈 남도 투어를 기획했다. 첫 번째 테마는 '눈 내리는 남도, 여기가 설국' 편이다.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전남의 설경 명소를 영문 번역본과 함께 소개한다.

해의문화기획은 영화와 미술, 낭만이 가득한 삶이 숨쉬는 '라라랜드'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 캘리포니아의 제1도시인 LA는 매년 전 세계에서 5000만 명이 찾아오는 만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수많은 명소 가운데서도 영화 '라라랜드'에 등장한 핫플레이스와 클래식한 명소들을 둘러보고 왔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연 우주항공수도 고흥으로 향한다. 팔영산, 편백 치유숲과 거금 해안경관 등 천혜의 자연자산을 활용해 생태친화형 관광도시로도 도약하고 있는 고흥의 멋과 맛, 미, 흥을 찾아 나선다.

이외에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미술관이 넘치는 예술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현장을 둘러보고, '화제의 전시'는 평생 모고로 간직한 예술의 행복을 나누는 '임원식 컬렉션' 전을 다녀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냉철한 이성보다 따뜻한 감성”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진심이 모여 새 길을 만든다' 펴내

'이성도 중시 하지만 감성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다. 바이올린과 바둑을 사랑하고, 추억과 정을 오래도록 간직한다는 것이다. 사실 의사 하면 더욱이 국립대 병원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판단력, 과감한 추진력 등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감성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멀거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산문집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원장취임 및 전남대병원 1동 코호트 격리부처 시작해 2023년 10월 19일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이르기까지를 아우른다. 그는 병원과 연관된 다양한 업무, 그에 따른 병원장으로서의 생각, 느낌 등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제33대 전남대병원장이자 국내 최고 심장학 명의인 안 병원장이 산문집 '진심이 모여 새 길을 만든다' (전남대 출판부)를 펴냈다.

책에는 병원장 고유의 업무를 포함해 일상에서 느낀 감성적, 예술적 단상들을 담은 글들이 수록돼 있다. 안영근이 생각합니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지난 3년간 병원장을 맡으며 몸소 의료현장에서 체험하며 느꼈던 단상들을 풀어낸다.

그는 "3년간 병원장의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바로 '감사합니다' 이 다섯 글자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전남대병원'이라는 브랜드가 계속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안 병원장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픈 환자분과 함께하며 기쁨을 선사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전남대병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